

불신 세상에서 살아가기

오정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도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죽음을 상급으로 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위협에 직면할 때 두려움으로 세상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일상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좋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기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것처럼 하지만 세상의 아편과 포악함에 갑작스럽게 노출될 때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고 신앙의 금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의 베드로가 그랬다. 포박당한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이바의 집 뜰에서 얼굴에 침 뱀음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것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세상의 잔인 무도함에 짓눌렸다. 그렇게 청춘을 바치기며 따랐던 스승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자 세상에 대한 공포가 쓰나미처럼 베드로의 심신을 쓸어버렸고 그의 생각을 마비시켰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나홀로의 신앙생활에 갇힌 채 세상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도 않는다. 그는 세상 속에서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도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러했다. 그가 이국땅의 낯선 곳으로 끌려갔던 시기는 꿈 많은 10대 때였다. 왕족의 삶에서 하루아침에 포로로 전락

한 처지를 한탄하며 꿈을 잊어간 세상의 황포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가 맞선 세상은 당시 사회적 위세를 떨쳤던 절대 권력이었다. 제국의 모든 사람이 그의 말 한마디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온 세상이 그 앞에서 오름을 피지 못하던 절대 공포를 사춘기의 소년인 것처럼 거룩한 저항력으로 맞서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나이보다 믿음의 칼이 드는 것이 신앙적 생존력을 훨씬 배가시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다니엘은 세상의 거대한 공포와 위협에 맞설 수 있었을까? 그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평생의 출세를 보장하는 세상 권력과 목숨까지 요구되는 신앙,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이 극적으로 충돌하는 다니엘의 상황은 양상만 다를 뿐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실은 우리 신앙인들을 으바퀴르면서 세상의 힘에 고개를 숙이도록 공종을 강요하고 있다. 날로 기세를 떨치는 자본주의와 세상 권세에 사로잡힌 막강한 세속성의 중력은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와 공포 우리의 심장을 마비시켜 우리 속에서 신앙적인 열등감, 불안감, 좌절감, 불신감의 길로 내 몰고 있다. 우리는 과연 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해체시키는 세상에서 고결한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이 땅에서 현실도피나 타협이 아닌, 현실에 참여하면서도 현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의 충돌은 기본적으로 여7에서 비롯되고 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유언처럼 말씀하셨다.

지난 120여 년이 넘는 개신교사에서 지금까지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마음과 수치를 당한 적이 없는지 알기 어렵다. 근래들어 몇몇 교회 지도자들의 못난 모습이나 신자로 칭하는 이들이 신자임지 못한 부끄러운 행동들을 범하여 세상의 미움을 재촉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세상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속명적인 일이다. 세상의 비수 같은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은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에 감화한다.

성이나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에 감화하는 것이다. 한 신앙 인격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잘 아는 사람일수록 이웃의 기쁨을 진정으로 자기화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죄조의 비극이 동생의 잘못을 질투하였던 형의 분노에서 시작된 죄임을 기억한다면, 이웃의 슬픔과 기쁨에 동참하라는 명령은 죄의 힘보다 열배나 강한 은혜의 증거가 없는 어려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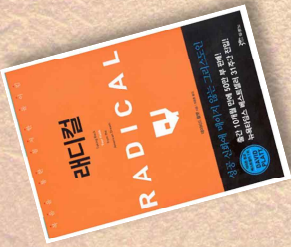
겸손한 이웃이 되라
 세상은 본성상 거만한 존재이다. 거만한 세상의 실체를 발가벗기는 에레미야의 소리를 들어보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다.” 모압은 세상의 이름이다. 한마디로 겉옷을 벗기면 뱀속까지 거만함으로 가득 찬 존재가 세상이라는 말이다. 거만한 자는 상대방을 분기행친하게 하는 회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겸손 앞에서 겸손하기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거만한 자 앞에서는 겸손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의 겸손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리트머스트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을 함께하는 이웃이 되라
 사랑받는 사람의 희비(喜悲)에 동참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요 본성적인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 마음이 통하지 않던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것은 죄성에 반하는 어려운 일이다. 헨리 나우웬의 말처럼 죄성의 중력을 복음의 대기권(大氣圈) 속에서 외해시키고 중생시키기 위해서는 그보다 열 배나 강한 힘이 있어야만 한다. 설혹 나름의 신앙 인격이 되어서 우는 자와는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웃의 기쁨에 진심으로 동참하는 것은 상당

원수라도 먹고 마시우는 이웃이 되라
 인간에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같은 보복심리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을 것”임을

얼마 전에 데이비드 플렛(David Platt)의 「레디컬」을 읽으면서 가슴 뛰는 문구를 접하였다. “죽음이 상급(賞給)이 되는 순간 삶은 급진적이 된다.” 목회를 하면서 늘 가슴에 품고 있는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과 상통하는 글이었다. 죽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귀한 상급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급격한 질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와 회유에 맞설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것이다. 죽음을 상급으로 삼으면 세상의 그것이 무엇이든 두려움 없이 현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순종하며 기적이 신앙적인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참으로 세상이 강당할 수 없는 존재로 ‘트랜스포머’ 되는 것이다.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다. 우리는 시지처럼 밤낮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신앙기준의 절대치를 임계점까지 올려야 한다. 적당하게 사는 삶으로는 세상도 하나도 감동시킬 수 없다. 죽음이 상급이 되면 다니엘처럼 믿음의 푸른 기개를 가지고 맞설 수 있는 담력은 물론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질전팔기의 강력한 영적 복원력을 가질 수 있다. 일순간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순교적 의기(義氣)가 심장과 혈관을 타고 도는 한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얻는 것이다.

베틀처럼 지혜롭게 이웃의 마음을 얻어라
 이 불신 세상을 베틀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상급으로 삼는 순교적 용기와 더불어 회생하는 길 외는 다른 수가 없다. 세상은 우리의 지



우리 속에는 원수라도 사랑하는 힘,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능력, 거만하고 고집스러운 이웃이라도 겸손으로 품을 수 있는 관용력이 내재되어 있다.

경고하였다. 우리가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보복이 우리의 권한 밖이요 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복은 축복도 삼켜버리는 저주의 블랙홀이다. 아담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복수의 파를 흘린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만큼은 복을 빌지 않았다는 사실은 보복이 신자의 머리와 가슴에 백해무익함을 증언하고 있다.

세상의 냉소와 미움, 위협과 공포에 짓눌리지 않고 세상의 증력에 거북한 용기로 맞서는 것이나 최대적이고 고집불통인 이웃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겸손하고, 원수라도 축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성정으로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 의 사랑에게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 믿기 전의 우리는 진흙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속에는 원수라도 사랑하는 힘,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능력, 거만하고 고집스러운 이웃이라도 겸손으로 품을 수 있는 관용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인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축복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능

오정현 사령의교회 담임목사, 송실대 영문과(박사), 홍신대 신학대학원, 포항공대(석사)대학원 신학 박사이며 허버트 대학교에서 수행학(Executive Fellowship)하였다. 크리스체너티, 투데이 칼로닌 발행인이며, 한국교회봉사단 단장, 중국 연광과학기술 대학교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회개는 사람 사토 흐른다」, 「교회의 상장을 깨우는 장물지 않는 사역자」, 「영광의 비전메이커」 등이 있다.



Felix



오르간 연주자 거장인 독일인 펠릭스 힐은 23세의 나이에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청년 콘서트 오르간 연주자"(인위버 바사), "금세기 위대한 연주자중 한 사람"(AGO 회장, 프레드리크 스완 바사), "명성 있는 노 연주자들도 따라가기 어려운 위하는 장으로 세계무대의 표준을 창조하는 연주자"(미국 오르간 연주자의 마이를 버클등의 극찬을 받고 있다. 1999년 줄리아드 장례 생생, 2001년 카타스 음악 인스티튜트 장례 생생, 2007년 피바 디 인스티튜트에서 예술 디플로마를 받았다. 「교회와 세상을 깨우는 장물지 않는 사역자」, 「영광의 비전메이커」 등이 있다. 「회개는 사람 사토 흐른다」, 「교회의 상장을 깨우는 장물지 않는 사역자」, 「영광의 비전메이커」 등이 있다.

Felix

오르간 연주자 세계적 거장 펠릭스 힐 내한공연

2011

- 06.12(일) 오후 200 덕수교회 | 서울
- 06.13(월) 오후 730 장신대학교 | 서울
- 06.15(수) 오후 730 분당신사교회 | 서울
(후원자초청감사의 밤)
- 06.18(토) 오전 930 고신대학교 | 부산
(미스트클래스)
- 06.19(일) 오후 230 부산중앙교회 | 부산
- 06.20(월) 오후 700 고신대학교 | 부산
(후원자초청감사의 밤)
- 06.23(목) 오후 700 제주성인교회 | 제주
- 06.26(일) 오후 400 부진교회 | 부산
- 06.29(수) 오후 730 울산교회 | 울산
- 07.01(금) 오후 730 경신교회 | 광주
- 07.03(일) 오후 700 포도원교회 | 부산

공연문의 051)990-2202

주최 **고신대학교**
GOSIN UNIVERSITY

후원 **국민일보**

부산CBS

울산CBS

기독교보

CBS 기독교TV | **CBS** 부산방송 | **CBS** 울산방송 | **CBS** 제주방송